

## 위대한 《중국, 중국인》: 린위탕 스타일\*

- 상호보완으로서의 유교와 도교 -

박 계 성\*\*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중국, 중국인》에 나타나는<br>유교와 도교 인식 |
| II. 린위탕, 어떻게 '독해'되어<br>왔나? | 1. 유교와 도교                         |
| 1. 중국(대륙)의 경우              | 2. 유교/도교의 상호보완                    |
| 2. 일본의 경우                  | 3. 위대한 중국인                        |
|                            | IV. 결론                            |

### I. 서론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동아시아는 다양한 긴장과 마찰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경험'의 해독에 있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험과 감각에 비추어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의 저서이자 중국 문화 비평서로 유명한 《중국, 중국인》(《吾國與吾民》, *My Country My People*, 1935)을 연구대상으로 동서문화비교라는 관점에서 林語堂(Lin Yutang 1895.10.10.~1976.3.26., 이하 린위탕, 또는 약칭 '林'으로 표기)의 사상, 그 가운데서도 주로 유교와 도교에 관련한 제 논의들을 검토하여 그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38922)

\*\* 蔚山大學校 中語中國學科 講師

문학사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으로서는 주로 중국문화소개, 루쉰과의 관계에서 언급된 고착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孔子의 문체에 공명하여 《論語》, 《人間世》, 《宇宙風》 등을 창간하며 1930년대 유머, 소품문의 유행을 일으키며 당시 문단에서 신문체, 신문학 창조를 이끌던 林은 루쉰과 더불어 뛰어난 산문작가로 꼽히기도 한다. 그렇지만 求仁이 啓蒙을 압도하던 시대적 역사적 현실 속에서 유머나 한적, 소품문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평가절하 되었던 연구풍토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일별하며, 린위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읽혀져 왔는지에 대해 대륙과 일본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다. 지면의 관계상 대표적인 내용만 언급함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II. 린위탕, 어떻게 ‘독해’되어 왔나?

1930년대 후반부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영어권 독자들에게 광범한 호소력을 발휘하며 인기를 누리던 린위탕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다. 牛林杰등의 정리에 의하면, 37년의 작품인 《생활의 발견》(1937, 미국에서 출간)을 계기로, 196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린위탕 전집마저 여러 종이 기획되는 예외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 린위탕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말부터였지만, 식민지시기에는 항일 민족주의라는 그 노선 때문에, 해방기에는 우파 자유주의라는 입지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소개되던 상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해를 거듭하며 번역본이 출간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여전히 읽히고 있다는 점, “각종 신문기사며 인터뷰를 통해서는 ‘중공’ 대 ‘자유중국’ 사이 후자를 지지하는 린위탕의 음성이 흔히 직접 전달되었다. 기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발견》이 ‘지혜’와 ‘행복’의 책으로 독서 대중에 호소했다는 현상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참조 바람) 한국에서의 린위탕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지면의 관계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

### 1. 중국(대륙)의 경우

린위탕은 80년대 이후의 대륙에서 ‘복권’된 작가로서 대표적인 존재이다. 종래의 ‘페어플레이’를 둘러싼 루쉰과의 응수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되었던 과거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林語堂名著全集》(전 30권,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4년 11월)을 시작으로 그의 문학과 사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도 정비되고, 또 연구 면에서도 陳平原, 萬平近, 施建偉 등에 의해 주로 동서문화비교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일방적인 평가를 벗어난 착실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王兆勝 《林語堂的文化情懷》가 있다.

80년대 린위탕의 ‘복권’<sup>2)</sup>에 가장 큰 공헌을 한 施建偉의 연구성과로 《林語堂研究論集》(1997) 및 《林語堂傳》(1999)이 있는데, 서술의 스타일은 고전적인 것이다. 전자는 유머, 잡문, 동서 융합, 사상의 모순 등 린위탕 연구에 있어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망라해, 각각의 측면에 관한 견해를 단편적으로 모아 정리하는 것으로서 林의 전체상을 구축하려

1) 牛林杰·张懿田, 〈林語堂在韓國的譯介及其特点〉, 《한중인문학연구》 제40집, 2013.8, 173-188쪽.

2) 대륙의 린위탕 연구의 성과는 施建偉, 王兆勝, 陳平原, 萬平近에 의해 상세히 소개되었다(施建偉, 〈近十年来林語堂作品在大陸的流傳與研究〉, 《林語堂研究論集》,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1997년7월, 105~118). 대표적 연구성과로 王兆勝 〈林語堂的研究研究現狀〉, 〈超越與深化〉, 《林語堂的文化情懷》(博士論文集 單行本 한 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년12월, 3~16). 萬平近 《林語堂論中西文化》(1989) 등이 있다.

시도한 것이고, 후자는 문자 그대로 고전적인 평전 스타일이었다. 예를 들면, 林의 대표작 《吾國與吾民》(1935)을 평가함에 있어서 林 스스로가 제시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연구대상이 갖춘 문제의식을 상대화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객관성이나 설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이 결점을 가지면서도 신선하게 비치는 이유는 텍스트에 밀착한, 린위탕에 내재하는 논리에 따른 분석이 종래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林語堂的文化情懷》의 저자 王兆勝의 후배인 王智慧는 본서에 대한 단평 〈評《林語堂的文化情懷》〉<sup>3)</sup>에서 린위탕의 인생에 관한 비극의식을 찾아내어 주목한 것은 좋지만, 분석과 서술 면에서 결국은 표면적인 분석에 머물렀다고 고언하고 있다. 사실, 린위탕의 ‘비극의식’에 관해선 초판본의 필벽 여사의 〈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sup>4)</sup> 이점 반드시 지적해 뒤야 마땅할 것이다. 그는 동향의 친분 때문인지 작가 張煒의 ‘문학의 중심 부재설’을 인용하면서, 린위탕의 ‘한담체’는 문학의 개성, 독립성 확립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전통문화의 재평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張煒는 일본에서의 강연에서, 이 ‘문학의 중심’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즉, 문학 세계에 있어서의 ‘중심’은 결코 외재하는 타자가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작가의 심성, 문화 소양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당장의 문학영역에 있어서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이고, 그 지주로서 고전 문학의 전통과 지역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단에 있어서의 현재적인 문맥으로 전통지향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표명한 것인데, 《紅樓夢》을 동경해 그것의 현대판으로서 《北京好日》(1939년)을 집필, 중국 소설을 비 동방 세계에 ‘수출’한 린위탕의 모티

3) 王智慧, 〈評《林語堂的文化情懷》〉, 《中國現代文學叢刊》 第2期, 2000.

4) 원문은 아래와 같다.

“It must be humorous, because humour is an essential part of Chinese nature, deep, mellow, kindly humour, founded upon the tragic knowledge and acceptance of life.”

브와도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林의 ‘현재적 문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린위탕 연구의 재구축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상, 대륙에서의 연구동향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시대에 있어서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재단으로 말미암아 魯迅의 적, 혁명의 적(사회성 결여도 포함한다)이라는 레테르가 80년대까지 완전하게 불식되지 않았으며, 린위탕의 문학사상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萬의 “시대에 따라서 전진하지 못하고”, 동서문화의 비교연구에서도 “가끔, 터무니없고 두서가 없다”라는 평가<sup>5)</sup>나, 施의 중국의 서양에 대한 당시의 ‘문화적 낙후’ ‘국정의 낙후’라는 주장<sup>6)</sup>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2. 일본의 경우

다음으로 일본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現代中国文学研究の50年〉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린위탕은 전후 27년간에 있어서는 작가별 논문수 베스트 20에 오를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尾崎和子, 魚返善雄 등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尾崎和子の 정리<sup>7)</sup>에 의하면 린위탕 저작의 일본어 번역에는 두 개의 피크가 있었다. 첫째는 1938년 7월 무렵으로, 《我国土·我国民》이 豊文書院, 《生活の発見》이 創元社에서, 그 초역 《有閑隨筆》이 偕成社에서 번역 출판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서평이나 속편까지 연달아 출판되게 되었다. 제2의 피크는 1940년경으로, 장편소설 《北京好日》(Moment in Peking)이 일본어의 《北京の日》(今日の問題社), 《北京好日》三册(四季書

5) 万平近編, 《林語堂論中西文化》,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1989.6, 1쪽.

6) 施建偉, 《林語堂研究論集》, 上海, 同濟大学出版社, 1997.7, 41쪽.

7) 尾崎和子, 〈日本における林語堂の受容の一端〉, 《太田進先生退休記念中国文学論集》, 1995.8, 271쪽.

房),《北京曆日》抄訳(明窓社) 등, 몇 종류나 출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林 작품의 일본어 번역은 “원저 그대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시의 일본과 일본인에 필요에 맞추어 적당하게 변형된 형태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며, “여기에서는 중국의 전통이나 고전을 존경하는 그의 보수적인 측면만이 오로지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후의 린위탕 연구를 결정짓게 되었다”라고 尾崎和子は 언급한다.

그럼 실제 린위탕이 어떻게 읽혀 왔는지를 ① 저작의 번역에 종사한 사람, ② 일본에 소개하고 연구한 학자(주로 언어학자), ③ 林의 작품에 내재하는 사상에 주목한 사상가 등 의 순서로 간략히 정리하여 일본에서의 린위탕 수용의 특징을 알아본다.

① 新居格(1888~1951)이 번역한 《我国土·我國民》〈역자의 말〉에서 중국인의 생활, 문화 해설서로서 평가한 것이나, 《支那に於ける言論の發達》(1939)을 번역한 安藤次郎(1913~1986)이 말한 바, 대륙에서 「政治를 멀리하고, 人生에 접근했다」<sup>8)</sup>라는 이미지는 실제 林의 이미지와는 상반된다.

② 魚返善雄(1910~1966)의 〈言語學者としての林語堂〉(《言語研究》 13, 1949년)에서는 林語堂이 처음으로 日本의 学会에 소개된 것은 昭和10年 10月(1935年10月)의 《英文學研究》에 게재된 市河三喜의 〈A Chinese Grammarian〉을 통해서라고 했다.

③ 竹内好의 경우(1)雜誌編集에 종사한 시기, (2)小品文運動을 전개한 시기, (3)作品活動에 종사한 時期로 나누어 정리한다. 竹内는 林의 全体像을 언급하며 ‘文人으로서의 성공’, ‘思想家로서의 실패’라는 공식을 만드는 데, 竹内 개인의 관심사인 ‘思想家로서의 측면’만이 강조된 評價軸이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전시중도 포함해)에는 중국의 현상을 소개해 주는 인물로서 대인기였다. 그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가치로서 받아들여

8) 彭立, 〈三十年代林語堂文芸思想論析〉, 《文學評論》 第5期, 1989.

진 경향이 강하다. 바꿔 말하면 문학가라기보다 저널리스트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전후에는 竹内好의 평가, 즉 린위탕은 ‘빈약한 사상가’이며, ‘오늘날 중국으로부터도 거의 잊혀졌다’라는 평가가 통설이 되었고, 린위탕은 일본에서는 점차 연구 대상으로서 흥미를 잃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과거 일정기간 이러한 竹内好적인 관점이 일본의 학술계에 횡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중국과 일본의 선행 연구의 정리에 따르면 린위탕 연구는 위와 같이 요약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가장 주목해야 할 최근의 연구성과인 王兆勝의 《林語堂의文化情懷》를 예로 들면, 王이 분석한 ‘여성’이나 ‘도시문화’라는 테마는 실은 린위탕의 대표작 《중국, 중국인》에서 林 스스로가 제시한 문제의 답습인 것이므로 논자의 독창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연구 대상이 이미 안고 있던 문제의식의 객관화를 거치지 않는 계승, 林의 自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는 자세와 그 필연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텍스트에 밀착해, 린위탕에 내재하는 논리에 따른 분석이 지금까지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무관계가 아니다. 확실히 王의 연구는 새로운 시점의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린위탕상의 제시나 어프로치에 성급한 나머지, 종래 비판되어 온 林의 ‘특수성’이나 문학사상의 위치설정에 대해서, 이것을 대신하는 설득력 있는 평가를 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늘날 계통적인 검토가 가능해진 林의 텍스트에 충분히 밀착한 형태로 그의 중국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실증적인 정리, 분석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중국, 중국인》에 나타나는 유교, 도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래에는 개별적인 연구는 많은 반면,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단조로운 작업이긴하나 텍스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林의 유교/도교 인식을 살펴보겠다.

### Ⅲ. 《중국, 중국인》에 나타나는 유교와 도교 인식

본 장에서는 林의 대표작 《중국, 중국인》<sup>9)</sup>을 중심으로 林이 지향한 유교/도교의 상호보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우선은 사상적 측면에서 그의 독자성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편폭상의 이유로 텍스트에 언급되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일차적인 작업임을 밝혀 둔다.

#### 1. 유교와 도교

일본 유학사 연구에 있어서, 동양문화+서양문화를 주장하여 성과를 올린 인물로서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sup>10)</sup>가 있다. 그는 바로 동서사상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유가의 단점을 서양철학 혹은 불교로 보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林語堂의 경우는 차이를 보인다. 즉 유가의 단점을 보충하는 것은 도가이며, 또한 서양이론의 단점을 보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林의 동서융합 이론에 대해서 유교/도교에 대한 그

9) 본문에서 참조한 1차자료는 영문으로 〈英文原著〉 Lin Yutang, *My country and my people*, London; Toronto, William Heinemann, 1936, 363p.

*My country and my people*, by Lin Yutang, New York, Halcyon House, 1938, 382p. 그 외에 日本語, 中国語,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했다.

中國語譯: 黃嘉德訳, 〈吾國與吾民〉, 《林語堂名著全書》(第20卷),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4.11, 335쪽.; 郝志東, 沈益洪訳, 《中國人》(全訳本), 上海, 學林出版社, 1994.12, 460쪽.

日本語譯: 新居格訳, 《我國土・我國民》, 東京, 豊文書院, 1938.7; 鋤柄治郎訳, 《中國=文化と思想》(:*My country and my people*, 講談社學術文庫), 東京, 講談社, 1999.7., 522쪽.

韓國語譯: 신해진 역, 《중국, 중국인》, 서울, 장라, 1995.5, 314쪽.

10) 井上 哲次郎(1856년 12월 25일~1944년 11월 9일, 87세)는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의 일본 철학자. 서양 철학을 일본에 소개하고, 제국대학에서 일본인 처음으로 철학교수가 되었다. 호는 巽軒. 大東文化学院總長 등을 역임했다.

의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林은 중국의 전통사상을 서양의 학설과 비교하고, 유가와 배빗<sup>11)</sup>의 이론을 대응시킨다. 배빗 이론으로의 접근은 20년대의 미국 유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빗은 당시의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은 교수중의 한 사람이다. 林은 그의 학술적 이론과 관련지어 《八〇自叙》에서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이 시기로부터 그는 항상 유가와 서양이론을 대응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사상적인 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林이 어떻게 양자를 결부시키고 있는지 《중국, 중국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계를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교의 개념은 「天, 地, 人」이 「우주의 3才」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 개념은 아빙·배빗(인용자주: Irving Babbitt)이 세운 초자연주의·인문주의·자연주의라고 하는 세 개의 구분과 어느 정도 대응하는 구분이다.<sup>13)</sup>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유교를 인문주의로 해석하는 단서를 찾아낸 林이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주의의 등장이다. 아마도 도가사상과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해석, 즉 유가의 인문주의가 중국인을 완전히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는 그 이유를 1. 유교는 중산 계급의 도덕 교훈이며, 2. 망상이나 상상의 여지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만큼 매우 지나치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유가의 결점을 보충하고,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도교라고 林은 제안한다. 아래의 예문을 확인해 보자.

11) Irving Babbitt(1865.8.2.~1933.7.15.) 미국의 비평가.

12) 《林語堂名著全集10》(전30권)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4, 279-282쪽.

13) *My country and my people* (London; Toronto: William Heinemann, 1936, 102.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Confucian conception of man's place in nature is that "Heaven, earth and man" are regarded as "the three geniuses of the universe." This is a distinction somewhat corresponding to the Babbittian three-fold distinction of supernaturalism, humanism and naturalism.

제복을 입을 일도 없는, 혹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자신 속에 한층 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결코 사로잡을 수는 없다. 유가는 엄밀히 말해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너무나도 도리에 들어맞고, 너무나 바르다. 인간이라는 것은 흐트러진 머리로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약간 반항적인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활보하는 것을 즐기는 인간은 도교로 가게 된다.<sup>14)</sup>

이와 같이, 유가사상은 인간의 본성에는 적합하지 않고, 여기에 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가사상이라고 林은 생각했다. 林의 이 주장을 양자의 차이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유교	도교
문화와 규칙	자연
인·의	인·의 부정
도시철학	전원철학
시판 우유	금방 짜낸 우유
인위적	자연적
영혼을 인정	불로장생
...	...
고전주의	낭만주의

위의 내용에 대해서 林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순서

14) 앞의 책, 109-110쪽.

But there are people who do not wear or kowtow to the official buttons. Man has a deeper nature in him which Confucianism does not quite touch. Confucianism,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is too decorous, too reasonable, too correct. Man has a hidden desire to go about with dishevelled hair, which Confucianism does not quite permit. The man who enjoys slightly rebellious hair and bare feet goes to Taoism.

대로 나열한다면,

- 1) 유가는 인류의 문화와 규정을 변호하는 것이고, 도가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며 인류의 문화나 규정을 부정한다.
- 2) 유교의 가장 중요한 도덕은 ‘仁’과 ‘義’이지만, 노자는 “道를 잃고 나서야 德이 있고, 德을 잃고 나서야 仁이 있다. 仁을 잃고 나서야 義가 있다”라며 유교를 비웃었다.
- 3) 유교는 본질적으로 도시철학이며, 도교는 본질적으로 전원철학이다.
- 4) 유가는 판매 허가를 받은 소독된 우유를 마시지만 도가는 짠지 얼마 안된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은 우유를 농부처럼 직접 마실 것이라고 한 것도, 노자는 도시의 영업 허가증이나 소독 조치라고 한 인위적인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유는 이미 자연스러운 향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금전의 냄새를 풍긴다. 농부가 생산한 신선한 우유를 맛보면 노자의 관점을 의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생과의 공무원은 건강을 장티푸스 등의 오염으로부터 막을 수는 있지만, 문명사회의 오염으로부터는 지킬 수는 없다.
- 5) 유교는 영혼의 존재는 지적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고려한다.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라는 것이다. 유교는 자연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 선조의 영혼도 인정하지만, 천국이나 지옥, 또 신들의 계급제도, 창세기의 신화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교의 교의는 巫術이나 불로장수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도가는 중국 사상에 있어서의 낭만파며 유가는 고전파라고 하는 것은, 도교가 첫째로, 자연으로 되돌아감으로 세속을 피하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는 인위적인 유교문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인생이나 예술 안에 전원이상, 또 원시적인 것에 대한 소박한 숭배를 대표하고, 셋째로, 순진하고 소박한 ‘천지개벽’의 신화를 포함한 공상적인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열한 일련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도가와 유가의 대립 관계를 생각하면 서양의 “낭만주의자가 고전주의자를 혐오하듯이” 중국의 도가가 유가를 혐오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그의 인식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 말하자면 낭만주의/고전주의, 유가/도가를 대립구조로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이러한 이질적인 둘의 문화가 단지 대립한다고만 보지는 않았다.

林이 내린 결론은 ‘상호보완’이라고 하는 결론이다. 이것은 그가 표명한 ‘동서문화론’에서 보이는 동서의 상호융합과도 상통하리라 생각되지만, 그의 주장, 예를 들면 이학자를 제외하면 가장 현실적인 중국인이라도 내심 불로장수를 갈망하고 있거나 유교에는 신선사상은 없지만 도교에는 있다는 예문을 들어 도교는 유교가 제공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중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호보완’이라고 하는 그의 사상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유교/도교의 상호보완

林은 점차 도가사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게 되는데, ‘상호보완’이라 해도 유가사상보다도 도가사상에 다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인의 본성 문제와도 연결 지어지는 도가 인식이며, 상술한 것과 같이 도교는 유교에 비해, 보다 중국인의 본질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다. 林은 老子 자신은 불로장수의 약, 후세의 다양한 주술기도와도 관계가 없고, 정치에 있어서는 방임주의를, 논리에 있어서는 자연주의 철학을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원시적 자유 상태이며, 청정무위의 정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고 주장했고 유가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문명은 인류퇴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유럽을 부패시킨 원흉이라고 비판한 것 같이 “聖인이 죽지 않으면, 大盜는 그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조소하고, 유가의 성인을 인민을 부패시키는 원흉이라고 비판하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노자뿐만 아니라, 노자의 사상을 계승한 장자도 유가에 대하여 신랄하

면서도 교묘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 林은, 유가비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예절을 중시하고, 상복을 입는 기간부터 관 재료, 판자의 두께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제자들에게도 출세해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유교는 바로 풍자만화의 재료가 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도가사상을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유교의 결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중국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 또 하나는 중국문학의 영양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林이 도가를 자연주의= '진통제인 고탁'이라고 간주한 것이며, 후자는 불후의 명작과 도가사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든 것이다. 보다 상세히 보자면, 전자에 대해서 도가의 사상은 모르핀과 같은 신비로운 마비 작용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중국인의 두통이나 상심을 경감시키는 약리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도가의 낭만주의, 도가의 시, 도가의 자연 숭배는 유가의 학설이 평화와 민족통일의 시대에 도움이 되듯이 난세의 시대에 중국인의 괴로움이나 근심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도교와 유교는 중국인을 존속하게 하는 음양양극의 힘이라고 여긴다. 오히려 도교가 유교를 보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강한 어조를 아래의 단락에 유의하며 확인하자.

이론상으로도 실천상으로도 도교가 의미하는 것은 경험이 많고 교활한 불개입이며, 꺼림칙하게도 파괴적인 회의주의며, 모든 인간적인 개입의 무용성과, 인류의 모든 제도, 법률, 정부, 혼인 등의 실패에 대한 조소이며, 그리고 이상주의에 대한 불신이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기 보다는 오히려 믿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교는 공자의 실증주의에 대항하는 철학이며, 유교사회의 불완전성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유가의 인생관은 적극적이고, 도가의 인생관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둘의 이질적인 요소의 연금술에 의해, 우리들이 중국인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불멸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이 부

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불교만이 그 기지에 있어서 약간 도교에 필적한다).<sup>15)</sup>

위의 주장에서 ‘공자의 실증주의에 대항 한다’ ‘유교사회의 불완전성에 대한 안전판’ 등은 분명히 유가를 보완하는 도가의 작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도가사상을 높이 평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제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유교와 도교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둔 분석, 즉 사상적 측면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하다. 사상가보다 오히려 문인풍을 즐기는 문학자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불후의 명작과 도가사상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다음의 단락을 확인하자.

현실주의는 그런 이유로, 노인의 특징이며, 이상주의는 젊은이의 특징이다. 인생 40세를 넘어서 악당이 안 된 경우, 그는 소심자이거나 천재이거나 이다. 톨스토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서 제임스 발리와 같은 「큰 아이들」은 후자의 부류에 속하며, 그들은 타고난 순진함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진함에 사실 경험이 결합되므로 그 순진함은 우리들이 불멸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젊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 모두가 곧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순수한 도교라는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떤 응축된 못된 장난스러운 인생 철학의 콜렉션이더

15) 앞에 나온 책, 52쪽. 원문은 아래와 같다.

Taoism, in theory and practice, means a certain roguish nonchalance, a confounded and devastating scepticism, a mocking laughter at the futility of all human interference and the failure of all human institutions, laws, government and marriage, and a certain disbelief in idealism, not so much because of lack of energy as because of a lack of faith. It is a philosophy which counteracts the positivism of Confucius, and serves as a safety-valve for the imperfections of a Confucian society. For the Confucian outlook on life is positive, while the Taoistic outlook is negative, and out of the alchemy of these two strange elements emerges the immortal thing we call Chinese character. (注) So far as this negative attitude toward life is concerned, Buddhism is merely Taoism a little touched in its wits.)

라도 5000글자 속에 넣을 수 있었던 노자의 《道德經》보다 심원한 콜렉션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6)</sup>

이렇게 하여 세계적 불후의 명작을 세상에 보낸 천재적 작자들과 도가 사상과의 공통되는 속성을 언급하면서, 林은 나아가 중국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모든 뛰어난 중국문학, 모든 값진 중국문학, 읽을 만하고, 사람의 정신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모든 중국문학은 본질적으로 이 도교의 정신을 불어 넣은 것이다.<sup>17)</sup>

참된 중국문학은 도가사상에 의해 계발된 것으로, 예를 들면 시가가 유가의 엄격한 가르침에 따라 인생이 틀에 박힌 양식이나 도덕적 설교와 같은 진부한 말이 범람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林은 중국의 문인은 아침에는 道를 설명하고, 德을 논하지만, 일단 들판으로 나가면 詩를 읊고 詞를 만든다고 보았다. 그 시에는 도가사상이 넘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문인 대부분이 시를 짓는 이유이며, 그들의

16) 앞의 책, 51-52쪽.

Realism is, then, characteristic of old age, as idealism is characteristic of youth. When a man is past forty and does not become a crook, he is either feeble-minded or a genius. To the latter class belong the "big children," like Tolstoy, Robert Louis Stevenson and Sir James Barrie, who have in them so much native childishness, which, combined with experience of fact, gives them that capacity for eternal youth which we call immortality. All this is, however, pure Taoism, in theory and practice, for there is no profounder collection of a concentrated roguish philosophy of life than that contained in the five thousand words of Laotse's Taotehking.

17) 앞의 책, 53쪽, 원문은 아래와 같다.

All good Chinese literature, all Chinese literature that is worth while, that is readable, and that pleases the human mind and soothes the human heart is essentially imbued with this Taoistic spirit. Taoism and Confucianism are the negative and positive poles of Chinese thought which make life possible in China.

저작에 詩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인에게는 유교/도교의 양면이 공존하므로 중국인은 특별하다는 林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 보겠다.

### 3. 위대한 중국인

林에 의하면 중국인은 현실적인 민족이라고 하지만, 중국인의 자유에 대한 열애나 낙천적인 생활 태도에서 보이듯이 실제로는 낭만적인 부분이 현실적인 면보다 강하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단면은 중국통이라고 칭하는 외국인조차 곤혹스러워하는 바이며, 중국인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중국인은 본질적으로 도가사상이 강한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문학사상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바는 중국인에 있어서 도가사상은 본질적인 것이며, 유가사상은 교육에 의해 길러진 것이라는 발상이다.

위에서 언급한 도가사상의 낭만적인 성질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다는 林의 주장, 즉 「민족으로서의 중국인이 위대한 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권선징악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지고의 법전을 제정하는 역량을 가짐과 동시에, 자기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정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에 호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95퍼센트는 법정 밖에서 해결하고 있다.
- 2) 번잡한 예절을 제정하는 역량이 있음과 동시에, 이것을 인생의 일대 농담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장례식의 시기, 장이나 북을 시끄럽게 울리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 3) 죄악을 규탄하는 역량이 있음과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 4) 혁명운동을 일으키는 역량이 있음과 동시에, 타협 정신이 많고, 이전 반대하고 있었던 체제에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 5) 관리에게 대한 탄핵 제도, 행정관리 제도, 교통 규칙, 도서열람 규정 등

세척까지 잘 완비한 제도를 만드는 역량이 있음과 동시에, 모든 규칙, 조례, 제도를 파괴하고, 혹은 무시하고, 가지고 놀고, 조종할 수도 있다.

이상, 위에서 나열한 항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林은 서로 모순되는 양면의 균형으로부터 위대한 中國人像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도가사상의 낭만적인, 위대한 중국인의 공통점으로 하나의 개념이 이미 그 안에 자각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사상이나 문학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서, 도가사상의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머’다. 본고에서는 유머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 IV. 결론

이상으로 《중국, 중국인》에 나타나는 린위탕의 유교/도교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중국 사상에 있어서의 林의 ‘東西認識’을 고찰해 보면, 전반적으로 자국 문화의 통렬한 비판을 포함한 중국문화에 기울어져 있으며, 일관되게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문화 속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찾아내어 상호보완, 상호융합을 시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사상적인 측면을 보자면, 예를 들어 그가 유교와 도교를 말할 때에 유가 사상은 교육적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과는 적합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가사상이라는 인식, 중국 사상에 있어서의 낭만파인 도가, 고전파인 유가, 양자를 상호 보충하고 상호 융합해야만 위대한 중국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sup>18)</sup> 즉, 그에게 유교/도교는 사상자체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중국, 중국인으로 나아가기 위

18) 박계성 <동서문화, 린위탕 그리고 언어비교 -《吾國與吾民》에 나타나는 중, 영어 비교관점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76, 2016.8, 318쪽.

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발견되는데, 사상의 본연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상을 없어서 표현되는 언어라고 林은 생각하고 있다.

이미 그가 시도한 동서의 언어 비교에 있어서도 간결성과 사고의 구체성에 관해서는 중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지만, 분석적 사고는 결여되고 있고, 서양의 학술 논문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곤란함 등을 지적하는데, 林은 이 원인을 사상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林의 언설은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시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럼, 왜 林은 언어와 사상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배경으로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사상적 요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긴박한 20세기라고 하는 시대 목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구 열강 대국에 대한 중국 내부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시의 지식인은 언어 문제를 사상적 과제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03년 12월 현대 중국어의 구어 신문이 제창된 당시, 讀書人 뿐만 아니라 폭넓게 글자가 읽혀지기 위해 현대 중국어의 구어 신문이 제창되었다. 3년 후(1906)에는 표음문자 교육에 대한 논쟁<sup>19)</sup>이 시작되어, 방언의 표음문자 교육은 언어 통일의 방해가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게다가 2년 후는 에스페란토어 논쟁이 피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章炳麟은 한자를 표음문자화 하지 못하며, 폐지는 더욱더 그러하다며 한자 옹호를 주장한다. 이것이 나중의 현대 중국어의 口語文, 口語文學, 文言을 둘러싼 논쟁, 나아가 대중어 운동으로까지 이어 지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자해독율을 높여 사회 전체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말하자면 사상 개혁의 일관된 문제 의식이었다.

린위탕이 언어와 사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林이 ‘東西’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자각적으로

19) 白話道人(林癡), <《中国白話報》發刊辭>, 《中国白話報》1、12月19日)

중국의 언어 문제를 채택한 배경에는 언어 그 자체가 사상적 배경과 밀착되어 있다는 깊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탐색에서 일관되게 林이 주목한 것은, 중국 문화에 있어서의 한자라고 하는 표의문자의 역할이며, 그 영향이 문화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문학 본연의 자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한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 〈References〉

1. Ando Jiro & Kawai Toru. *Rin Godo: A History of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in China*. Seikatusha, 1939.
2. *Lin Yutang full article collection 10(The complete works of Lin Yutang: All 30 volumes)*. Dongbei Normal University Publishing House, 1994.
3. Lin Yutang. *My country and my people*. London: Toronto: William Heinemann, 1936.
4. Lin Yutang. *My country and my people*. New York: Halcyon House, 1938.
5. Ogaeri Yosio. "As a linguist Rin Godo". *Language study* 13, (1949).
6. Ozaki kazuko. "A part of the acceptance of Rin Godo in Japan". *Osamu Ota's memorial to Chinese learning memorial theory of Chinese literature*, Osaka: Chinese literary research group, 1995.
7. Park, K.S. "Humour, Familiar essay and Analects Styl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nam)* 47, (2006).
8. Park, K.S. "Orient-West Comparative Culture, Lin Yu-tang and 'Language compariso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Chinese Literary Society seoul*) 76, (2016).
9. Park, K.S. “Westernization and Orientalization”. *Chinese Literature Theory* 35, (2005).
  10. Park, K. S. “Aratana ringodouzoukoitiku heno kokoromi—Ouchoushou zho Ringodouteki bunnkajouhai”. *touhou* (244), (2001).
  11. Park, K. S. “Ringodouno bunntaironn: *shouhinnbunn kara gorokutai he*”. *yikyournnsou* 128-3, (2002).
  12. Park, K.S. “Ringodouni okeru touzaibunkaronn keiseino itisokumenn”. *genndaichuugoku* 74, (2000).
  13. Peng Li. “Sanshiniandai Lin Yutang wenyisixiang lunxi”, *Wenxue pinglun(Literature Review)* 5, (1989).
  14. Shi Jianwei. *Lin Yutang Research Thesis*. Shanghai: Tongji University Press, 1997.
  15. *Takeuchi Yosimi zenshu(17 volumes)*, Chikuma Shobo, 1980.
  16. Wan Pingjin. *Discuss the Chinese Western culture*. Shanghai Institute of Social Science Publishing, 1989.
  17. Wang Zhaosheng. *Lin Yutang's cultural ambition(Doctor thesis)*. Beijing: Chinese Social Science Publishers, 1998.
  18. Wang Zhihui. “To evaluate Lin Yutang's cultural ambition”, *Chinese modern literary papers* 2, (2000).

### 〈참고문헌〉

1. 安藤次郎·河合徹訳, 《支那に於ける言論の発達》(林語堂, A History of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in China), 生活社, 1939.
2. 《林語堂名著全集10》(전30권), 東北師範大学出版社, 1994.
3. Lin Yutang. *My country and my people*, London; Toronto: William

- Heinemann, 1936.
4. Lin Yutang. *My country and my people*, New York: Halcyon House, 1938.
  5. 魚返善雄, 〈言語学者としての林語堂〉, 《言語研究》 13, 1949.
  6. 尾崎和子, 〈日本における林語堂の受容の一端〉, 《太田進先生退休記念中国文学論集》, 1995.
  7. 박계성, 〈幽默、소품문 그리고 어록체〉, 《中国語文学》 47, 2006.
  8. 박계성, 〈동서문화, 린위탕 그리고 언어비교 -《吾国與吾民》에 나타나는 중,영어 비교관점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76, 2016.
  9. 박계성, 〈西洋化와 東洋化〉, 《中国語文学論集》 35, 韓国中国語文学研究会, 2005.
  10. 朴桂聖, 〈新たな林語堂像構築への試み. --王兆勝著『林語堂的文化情懷』〉, 《東方》 244, 2001.
  11. 朴桂聖, 〈林語堂の文体論: 「小品文」から「語録体」へ〉, 《一橋論叢》 128-3, 2002.
  12. 朴桂聖, 〈林語堂における東西文化論形成の一側面.〉, 《現代中国》 74, 2000.
  13. 彭立, 〈三十年代林語堂文芸思想論析〉, 《文学評論》 第5期, 1989.
  14. 施建偉, 《林語堂研究論集》, 上海, 同济大学出版社, 1997.
  15. 《竹内好全集》, 全17卷, 筑摩書房, 1980.9~1982.9.
  16. 万平近編, 《林語堂論中西文化》,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1989.
  17. 王兆勝, 《林語堂的文化情懷》(博士論文),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8.
  18. 王智慧, 〈評《林語堂的文化情懷》〉, 《中国現代文学叢刊》 第2期, 2000.

### 〈Abstract〉

As Lin Yutang(林語堂) refers to Confucianism and Taoism, Confucian thought is not suitable for human nature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Reactionally, Taoist(道家) thought is suitable. In Chinese philosophy, to be a great Chinese who has the mutual supplement & integration of the Romantic Taoist and the Classical Confucian. True Chinese literature was created by Taoist thought.

For example, we are relieving the strict life of Confucius from a form fitted to some extent and a moral sermon. Chinese writers mention ethics 道 in the morning and discuss morality 德, but if they go out into the field, they will write poems and make lyrics.

The poem is full of Taoist thought. This is why poetry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ir writings and the most Chinese writers make poems.

So, what is the reason for evaluating Taoist thought like this?

It can be estimated with two kinds. One is to comfort the injured heart of the Chinese as a supplement to Confucian faults. The other thing is to act as a nutritional agent in Chinese literature. Lin considers Taoist as naturalism = 'painkiller', and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ortal masterpieces and Taoist thought.

In other words, if the theory of Confucianism is useful in the age of peace and national unity. Romanticism of Taoist thought, poetry of a Taoist, is useful to solve the suffering and grief of the Chinese in the era of chaos.

In other words, the power of the negative and positive in Taoism and Confucianism are to keep the Chinese survive.

Key Words : 유교(Confucianism), 도교(Taoism),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Romanticism and classicism), 위대한 중국인(great Chinese),  
상호보완과 융합(mutual supplement & integration),  
자연주의(naturalism), 부정적(negative) 긍정적(positive)

